

[책을 읽다] 라이너 지텔만의 '반자본주의자들의 열 가지 거짓말'

✎ 임명신 기자 | ⌚ 승인 2023.05.03 18:06



'반자본주의자들의 열가지 거짓말'을 쓴 라이너 지텔만 박사(65)는 언론인이자 기업가이기도 하다. 역사학 심리학 양쪽에 박사학위가 있으며, 두번째 박사논문은 '부의 해부학'으로 우리나라에 번역됐다.

30여년 전 냉전구도가 해체될 때 자본주의와 반자본주의의 싸움은 끝난 듯 보였다. '자유 시장경제'의 확장 및 성숙만 남았다, 이른바 '역사의 종언'이 고해진 지 수십년 된 오늘날 전 세계 곳곳에서 '시장 대 국가'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라이너 지텔만 박사(Rainer Zitelmann 65세)가 <반자본주의자들의 열가지 거짓말>을 냈다. '자본주의 비판에 대한 비판서'다. <자본주의가 어떻게 아메리카를 구했나>를 쓴 T.딜로렌조는 "학교에서 배운 신화와 미신을 폭로하며 경제현실에 대해 학문적이면서도 매우 읽기 쉬운 설명을 제공한다"고 상찬했다. 지텔만 박사는 역사

학과 사회심리학 양쪽에 박사학위를 가진 기업가(경영 컨설턴트)이자 언론인이다. 두번째 학위 논문(2016)이 <부의 해부학>으로 한국에 출간된 바 있다.

‘기아와 가난’ ‘불평등 확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경제위기의 반복’ ‘비민주’ ‘독점 조장’ ‘이기심과 탐욕’ ‘불필요한 소비’ ‘전쟁’ ‘파시즘의 위험’ 등을 모두 자본주의 탓으로 돌리는 시각, 이 열가지 반자본주의 인식을 저자는 1부에서 하나하나 통계와 팩트를 들어 반박한다. 반자본주의 대안을 논한 2부, 반자본주의가 지식인들에게 휘둘린 결과임을 일깨워주는 3부도 흥미롭다.

자본주의는 지난 200년 간 유럽과 미국, 지난 50년 아시아의 평범한 사람들 삶까지 크게 향상시켰다. 세상이 완벽하진 않지만 꾸준히 개선돼 왔으며 자본주의가 큰 공헌을 했다. 때로 문제를 일으켰으나, 정책 탓이지 시장이나 자본의 죄는 아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경제모델 논쟁 대신, ‘있었던 사실들’을 들어 1부를 구성했다. 어차피 반자본주의란 ‘종교적 신념’에 가깝기에 이론싸움이란 무의미하기 쉽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보통사람들의 상황을 개선했다’는 시각에 동의한 사람들이 저자의 고국인 독일의 경우, 설문 응답자의 15%에 불과했다. 반면 ‘기아·빈곤에 책임이 있다’ 응답은 세 배나 많았다(45%). 반자본주의 관점이 ‘부자에 대한 질투’ ‘개인적 실패의 위안’인 것과 무관치 않음을 저자는 지적한다. ‘질투’가 ‘사회정의에 대한 헌신’으로 합리화 재해석되면, 반자본주의자들은 개인의 실패를 시장 자체의 모순으로 만든다. ‘평등=정의’가 통용되면서 반자본주의는 ‘정치적 종교’로 화한다. 이성이나 합리성보다 ‘감정적 거부’이기도 하다. 특히 지식인들이 부추긴다. 그래서 레이몽 아롱은 마르크스가 ‘종교=인민의 아편’이라 한 것을 비틀어, ‘사회주의=지식인의 종교’라고 했다.

인간이 유발한 최악의 기근은 과거 100년 간 반자본주의자들에 의해 벌어졌다. 반자본주의가 환경문제를 해결 해주지 못한다. 오히려 자본주의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부패도 그렇다. 전근대적 관료들이 큰 권한을 가진 곳이 문제지 자본주의 잘못은 아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경제자유지수를 비교하면 금방 알 수 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전쟁이 부자들을 향한 증오로 시작됐다는 점도 환기된다. 1917년 레닌이 부자들을 "인간쓰레기" "역병"이라 부르며 "몰아낼 것"을 목표 삼은 이래, 예외 없이 공산정권에선 피바다가 벌어졌다.

경쟁과 독점 역시 변증법적 관계에 있다. 경쟁을 통해 최고의 제품이 되면 독점하게 되고, 이 또한 언젠가 경쟁에 의해 무너질 수 있어야 건강한 시장이다. 가장 위험한 것은 ‘국가에 의한 독점’ 즉 ‘반자본주의’일 때다. ‘약자 배려’ 등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가권력이 경쟁을 막으면 늘 엄청난 부작용을 낳았다. 그래서 "민간의 통제받지 않는 독점이 그나마 가장 폐해가 적다"(M. 프리드만) 판단에 공감하게 된다. 자본주의는 그저 재화공급의 합리적 질서를 말한다. 지상낙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 각자 행복추구가 가능한 틀을 제공할 뿐이며, 행복과 삶의 의미 발견은 개인 몫이다. 그것이 자유주의 철학의 기본이기도 하다.